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오픈

4차 산업혁명 중요자원으로 활용 계기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은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한 '월격 연구분석 플랫폼'과 지역보건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건강지표 플랫폼'을 오픈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했다.

플랫폼은 월격 연구분석, 지역별 건강지표, 모바일 기반 자가건강관리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오픈한 '월격 연구분석 플랫폼'은 시범운영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으며, 연구자료 신청에서 분석까지의 전 과정을 전산화해 불편을 최소화했다. 대용량 및 민감정보를 클라우드 기반의 안전한 시스템

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자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가상화 환경에 접속해 다양한 분석틀을 이용할 수 있어 연구비용을 줄이고, 커뮤니티를 활용해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지역별 건강지표 플랫폼'은 지역단위 지표를 조회하고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웹스톱 기능을 탑재했다.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56종), 사회·경제적 지표를 지역단위로 실었다.

보건소 및 사업장 보건담당자가 지역, 소득, 성별, 연령대별로 특정 질환의 유병률, 의료이용률 등을 직접 비교·분석해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월격 연구분석 및 지역별 건강지표 플랫폼은 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홈페이지(nhiss, nhis.or.kr)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다.

모바일 기반 자가건강관리 플랫폼은 7월 중 오픈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가공한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원격으로 개방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건강지표가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보건 의료 분야 제4차 산업혁명의 중요자원으로 활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충주 출제센터 개관

국가시험 출제 위한 전용공간 마련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출제를 위한 전용센터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충주 출제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김창휘)은 약 1년 4개월의 공사 및 시험 운영기간을 거친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충주 출제센터 개관식을 6월 28일 가졌다.

개관식에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종배 국회의원, 조길형 충주시장, 이종갑 충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축하를 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충주 출제센터는 충북 충주시 안림동에 위치하고 있다. 연면적 5057㎡(153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출제장, 분임토의실, 숙소,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최대 120명을 수용



할 수 있다.

엄격하게 통제·관리되는 출제 전용공간이 마련됨으로써 그동안 외부 호별을 사용하며 야기된 보안상의 불신을 해소하고, 출제위원들의 업무 집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휘 원장은 "충주 출제센터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문제를 개발하고 출제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며 "앞으로 충주 출제센터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배출하는 인프라로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재미간호사 한추지 원로 소천

재미간호사 한추지 원로가 지난 5월 27일 소천했다. 향년 98세.

고인을 추모하는 장례예배가 캘리포니아주 휘티어에 있는 로즈 힐 메모리얼 파크에서 6월 20일 열렸다.

김영철 샌디에고 연합간호교회 원로목사가 집례했다. 재외한인간호사회 유분자 이사장(소망소사이어터 이사장)이 추모사를 했다. 재외한인간호사회 모니카 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 한추지 권사는 평양연합기독병원부속 간호학교와 일본 경도 산파간호학교, 서울중앙신학교를 졸업했다. 평양연합기독병원 간호원장을 지냈다. 이후여대부속 동대문병원 간호원장, 부산복음병원(현 고신대복음병원) 간호과장을 지냈다. 1978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대한간호협회장, 부산복음병원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원 간호원장을 지냈다. 이후여대부속 동대문병원 간호원장, 부산복음병원(현 고신대복음병원) 간호과장을 지냈다. 1978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대한간호협회장, 부산복음병원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국시원, 필기시험 출제문제 공개 등 추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김창휘, 사진)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국시원은 필기시험 출제문제 공개, 컴퓨터화시험(SBT: Smart device Based Test) 도입, 출제센터 건립 문제 등을 빠르게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대내외 요구가 가장 많았던 필기시험 출제문제 공개 결정 및 신속한 추진은 국민에 대한 대응성 차원에서 비뚤지 않은 성과로 평가받았다. 국가시험의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필기시험 출제문제는 2017년 준비단계를 거쳐 2018년 한의사 시험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 직종의 시험문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창휘 원장은 "응시자의 편의증진과 철저한 시험관리, 공정하고 정확한 문항개발과 출제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험평가기관이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보건의료연구원, 3년 연속 경영평가 A등급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이영성, 사진)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3년 연속 A등급이다.

이번 평가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밀접한 의료기기 및 서비스 평가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한 점이 평가받았다. '미래보건의료정책연구단'을 신설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의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자 한 노력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및 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을 통해 신의료기술의 임상현장 도입을 효율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영성 원장은 "이번 경영평가는 모든 임직원이 한뜻으로 이뤄낸 성과"라면서 "앞으로 내부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외부 정책·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환자중심·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세계마취간호사회 이사회 열려

정계선 이사, 연구지원비 대상자로 선정돼

세계마취간호사회(IFN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Nurse Anesthetist) 이사회가 지난 5월 12~1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마취간호사회 이사인 정계선 마취간호사회장(한국)이 참석했다. 정계선 이사는 2014년 선출돼 한 차례 임기를 마쳤으며, 2016년 재선임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세계마취간호사회 회원국은 42개국이며, 현재 회장은 제키 라울즈(미국)가 맡고 있다. 한국은 1989년 창립 멤버로 시작해 줄곧 회원국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9년에 맞이할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준비와 역사집발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심사를 통해 연구비 지원 대상자를 결정했다. 심사결과 정계선 마취간호사회장(조선간호대 교수)과 레이본 미국 미시시피대



교수의 공동연구계획서가 선정돼 5000달러의 연구지원금을 받았다. 한국 간호사의 마취간호에 대한 기여도 주제로 연구하며, 내년 세계마취간호사 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하게 된다. 한국의 연구자가 연구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제13회 세계마취간호사 학술대회(WCNA) 개최최소수를 답사하고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학술대회는 2018년 6월 18~2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다. 학술대회 초록제출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wcna2018.com) 참조.

정규숙 기자 kschung@

한인실 보건교사, 국립암센터 금연대상 수상

한인실 인천당하중 보건교사가 국립암센터가 주관하는 '제7회 국립암센터 금연대상' 개인부문 대상을 6월 20일 수상했다.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해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했으며 학교 금연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흡연예방노래곡집 '당신은 소중한 해'를 제작·보급했다. 금연노래 부르기 대회, 금연샌드위치 만들기 등 체험위주의 금연교육을 실시했다. '평생금연약속 꽃길'을 조성해 학생들이 금연의지를 다지도록 했다. 흡연·금연구역 지도 만들기, 금연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 금연에도 앞장섰다.

최수정 기자 sjchoi@



한인실 보건교사는 "학생과 소통하는 쌍방향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금연과 흡연예방에 힘쓰고 있다"면서 "학생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앞으로도 흡연예방과 올바른 건강습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인실 보건교사는 1989년부터 교직생활을 시작했다. 인천시보건교사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인천시간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무총리 표창, 교육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적용 추진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상한금액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항목에 따라 최저 0원부터 최고 10만원 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제기해왔었다.

이에 복지부는 고시안을 통해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개 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푯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정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와 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 등은 최고 1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임태원확인서·진료확인서 등은 1000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상해진단서 등은 10만원 이내, 장애진단서 등은 4만원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으며,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도록 했다.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변경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주혜진 기자 hjoo@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옥수 인쇄인 김갑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다0638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호사신문 (02) 2260-2571
FAX (02) 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nursenews.co.kr

독자주소변경

☎ 02) 2260-2571

간호인력 해결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와 함께하세요!!

꼭 챙기세요~

- 01 RNjob 홈페이지의 구인기관 등록 시 취업 우선 연계
- 02 센터와 연계하여 현장실무훈련 취업 시 간호사 1인당 훈련비 100만원(4주 기준) 지급

지금 신청하세요~

- 03 효율적인 간호인력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간호관리자 교육
직원소통 전략 및 갈등관리, 정부지원 제도 소개

- 0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예정)병원 간호인력 교육
변화된 의료환경 이해, 우수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 05 취업간호사 실습지도 표준화교육
최신 임상술기 및 표준화된 간호절차
- 06 권역센터



※ 대표전화 1522-1755로 연락주시면 중앙 및 권역센터 어디든 연결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위탁 www.RNjob.or.kr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1522-1755

